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베트남 관광수요 전북으로 유인

### 도, 하노이서 '전북 관광설명회' 열고 관광자원 전파 하노이 한상연합회와 협약 등 국제통상 네트워크 확충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방한 관광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베트남 관광수요를 전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 관광마케팅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 시 인터콘티넨탈(웨스트레이크)호텔에서 베트남 정부를 비롯해 민간업계 관계자 200여명을 초대한 가운데 2023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 관광설명회에는 베트남 관광총국, 하노이시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하노이 관광정보 아카데미, 베트남 관광 및 마이스 협회 여행사 인력 홍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하노이 TV, VTC, Vietnam News Agency TV 등 26개 현지 언론사가 참여해 현장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와 전북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베트남 전역에 전파했다.

행사에서는 한류문화의 본고장인 전북의 전통문화 체험 여행상품과 계절 여행 상품 중심으로 한 14개 시군의 관광자원 소개하는 등 베트남 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선보여 현지 여행사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또한 베트남 여행사와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도시 간 관광객 유치 협력을 위한 초석도 마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베트남 현지 방송·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전라북도의 한류, 첨단농업, 전통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알리며 2023년 열리는 아태 마스터스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프리 국제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전북도는 다음날인 15일에는 호치민 시로 이동해 호치민시 관광국과 민간관광협회, 여행사, 여행신문 등 30여명과 함께 전북관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도는 베트남 합트림(Huynh Tan Rim)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베트남 관광객 전북도 유치를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한류의 진수를 보여드리고자 전북관광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아태 마스터스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프리가 열리는 만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관광수요를 전북으로 많이 유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현지 한인상공회의소들과 경제교류 협력을 맺는 등 도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전북인품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제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해 나간다.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한 전북도 외교사절단은 지난 14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 한국상공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8일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의 업무 협약도 예정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인도네시아 한인 상공인들과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 국제 행사의 전북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제교류 협력 업무협약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상공인과의 협력 관계 구축으로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이뤄내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세안 지역으로 전북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우호 교류 확대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전북도의 포석이다.

김관영 지사는 "아세안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상공인들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굉장한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과 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진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전북에 대한 투자 유치, 국제 행사 유치 등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함께 성공 스토리를 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북 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상호 협력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외교사절단이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전북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세일즈외교를 나선 가운데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프라이즈 호텔에서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이공명 부회장 및 호남한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북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국제 행사 전북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전북도 외교사절단 제공)

# 도전·기회·함께 성장하는 청년정책 본격

### 전북도, 1차 청년정책조정위 열고 기본계획 수립·올 시행계획 발표

전북도는 16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공동위원장 조봉업 행정부지사·합정훈(유정기와 대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2차(2023~2027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023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참여위원회 지정변경(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전북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청년'이라는 비전과 청년참여 기반의 생애주기별 종합정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참여형 정책 발굴 및 추진 시

### 기본계획으로 생애주기적 지원 시스템 구축·참여형 정책 발굴 올해 시행 계획으로 청년생활 안정기반 조성 등 분야별 추진

범 구축, 스타터 및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골자로 변화된 청년정책 기초를 반영하고 청년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특히, 일자리·창업 중심이었던 전라북도 청년 정책을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으로 조정했다. 청년정책 중간조직 및 청년조직 등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상황식 사업 발굴 체계도 마련했다.

이어서 '도전', '기회', '함께 성장'을 방향으로 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전라북도 청년정책은 총 9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년 대비 580억 원이 증가한 3,169억 원을 투입해 세대별 정책 수요에 맞춰 일자리, 주거, 교

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별로 청년정책을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는 진로 탐색(구직)부터 자산 형성(재직)까지 사업 간 유기적 연계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탄탄한 고용인정 사다리를 구축한다. 일자리 분야로 대학생 직무인턴,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이 있다.

주거분야는 학업, 취업 정착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분야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산업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 분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지

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다.

복지·문화분야는 전북 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등 경제적 자립 및 청년생활 안정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콘텐츠 창작활동 및 창업을 지원한다.

참여·권리분야는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등 청년 정책수요 반영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한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새롭게 수립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며, "전북지역 청년이 기회와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민 정신건강 위기상담 24시간 제공

### 전북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다각적 추진

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를 기존 5대에 8대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원

광대학교병원 지정)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조로 24시간 정신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자살시도자의 경우 응급실·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

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자살징후자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1만 명 양성, 농약안전보관함·번개탄판매보관함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생명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 (10만원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을 돌려드립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자혜택|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곰소젓갈, 청자제품, 부안사랑상품권 등 20개 품목)

기부금액	세액공제+답례품
100,000원	130,000원
1,000,000원	548,500원
5,000,000원	2,408,500원

###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